

화학산업 탄소중립 거점 여수에 들어선다

전남도-화학연구원-여수시 연구원 전남조직 설립 업무협약



전남도 화학산업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여수에 건립된다.

전남도,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시는 25일 여수·광양산단을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여수)조직 설립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

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은 2022년 여수국가산단 인근 삼동지구 2만 349㎡ 부지에 국내 유일 화학 분야 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이산화탄소

표집·활용(CCU) 실증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구인력 40여 명이 상주한다.

전남도, 화학연구원, 여수시, 3개 기관은 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의 토대가 되는 1단계 사업으로 283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석유화학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0억 원이 소요될 2단계 사업 'CCU 실증센터'와 관련,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이 설립되면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개발, 산업수요 맞춤형 화학소재 실증·양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실증을 통해 상용화로 연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은 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클린전남 구현'을 위해 가장 큰 변화가 시급하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산업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개발의 토대를 구축해, 석유화학·정유·철강산업을 탄소중립형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사업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이 설립되면 화학 관련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명영 기자



농협 순천시지부, 농촌 일손돕기 리그린(Regreen) 환경정화 활동

농·축협 임직원 20여 명 참여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조창현)와 순천시 관내 농·축협 임직원

들은 지난 25일, '리그린(Regreen) 농촌 환경정화 활동' 행사를 실시했다.

리그린(Regreen)이란 "환경이 파괴된 지역을 복원하다"라는 의미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농·축협 임직원 20여 명은 그린 뉴딜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서면 화정마을 주변의 생활 쓰레기, 농용품 폐비닐 및 농약병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에 힘썼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조은혜씨는 "농자재 쓰레기들을 깨끗이 처리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많은 쓰레기에 놀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그린뉴딜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주관한 농협 순천시지부 조창현 지부장은 "농촌마을과 강변 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한 임직원들은 리그린 정화활동 전에 가을 영농철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면 황전마을 황*구 농가를 찾아 단감수확 일손돕기도 적극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다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중앙공원에서 첫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26일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회의에는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 민간공원 추진사항과 쟁점 보고·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별 추진사항과 쟁점을 보고했다.

'중앙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대로 두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고 그러면 도심의 허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연 것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김대지 국세청장, 광주 평동산업단지 현장소통

자동차부품·뿌리산업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적극적인 세정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광주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선정제와 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항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

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비롯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또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과 기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여성리더쉽교육' 개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광양 새마을금고 갤러리와 곡성, 구례에서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교육을 개최했다.

첫 강연은 박주식 광양시민신문 대표의 '지역신문 활용하기' '보도자료 쓰는 법' '사진 잘 찍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강연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연화 작가를 초청하여 글쓰기 특강을 통해 '글쓰기의 자신감'

'주변 경험을 활용한 글쓰기' 등 글쓰기의 주제와 소재를 생활 속에서 쉽게 찾고 자신 있는 글쓰기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강연은 서동용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선진국으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여성리더쉽'에 대해 강의하고 2021 국정감사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더불어 서동용 의원은 "이후로도 여성 당원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